지적장애 동생 이발 시키고 귀갓길 지체장애 형 뇌출혈 사망

"형! 일어나" 안타까운 지하철의 절규

서로 손발 되고 머리가 되어 함께해온 30년 우애
광주 돌고개역서…갑작스런 생이별 주위 애태워

"형 일어나. 내려야 한단 말이야. 일어나."

1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지하철 돌고개역.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던 형(57)을 흔들어 깨우던 문모(52)씨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하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진 형(57)은 다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날 문씨는 30년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형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30년 전 뇌 수술 이후 몸 절반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형과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동생은 30년간 떼려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였다. 형(57)은 지체장애 1급이었다. 지적장애 1급인 동생(52)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생을 항상 곁에서 지켜보며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둘 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특별한 일거리도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형제간 정은 남달랐다고 한다.

문씨 형제들이 자주 찾았다는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적 수준이 낮은 동생이 물건을 깨거나 사람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거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형이 와서 다독거리고 사과하고 해결해주고는 했다"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인데, 너무 가혹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형제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들의 집을 나섰다. 광산구에서 열린 '무료 머리 손질 행사'에 함께 가자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형은 마지못해 문 밖을 나섰다. 한 번 뇌출혈로 쓰러졌던 탓에 환절기 외출은 위험했지만 하지만 동생의 부탁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며 웃었던 형은 화정역을 지날 무렵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리고 의식을 잃었다.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는데도 형의 고개는 들리지 않았다. 놀란 동생은 "형, 여기서 잠을 자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집에 가야지"라며 흔들었다. 형이 숨졌지만 동생은 여전히 형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문씨 집을 찾았는데, 동생이 바닥에 놓인 형 베개를 장롱에 집어 넣더라"며 안타까워했다. 두 형제는 항상 나란히 잠을 잤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의 큰 형(61)이 서울에 거주하고, 늙은 노모는 최근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터라 남은 동생을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다, 동생이 의사소통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을 서구청에 건의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소방헬기 산불진화 훈련 12일 오후 화순군 한천면 금전저수지 일대에서 열린 '2013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에서 헬기 7대가 편대비행을 하며 산불 상황이 연출된 곳에 물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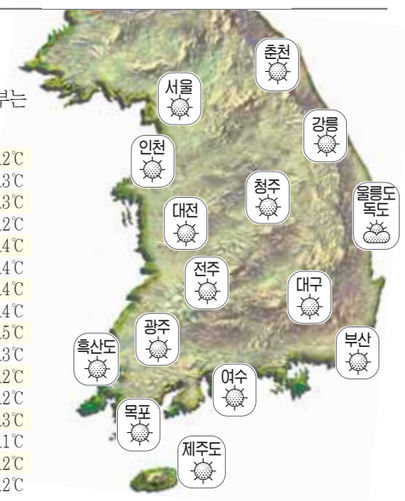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5분 / 해짐 17시 28분 — 달뜸 14시 47분 / 달짐 02시 30분

낮에도 추워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 부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3/12℃
목 포	맑음	4/13℃
여 수	맑음	5/13℃
나 주	맑음	1/12℃
완 도	맑음	5/14℃
구 례	맑음	0/14℃
강 진	맑음	2/14℃
해 남	맑음	1/14℃
장 흥	맑음	1/15℃
순 천	맑음	0/13℃
영 광	맑음	1/12℃
진 도	맑음	3/12℃
전 주	맑음	1/13℃
군 산	맑음	0/11℃
남 원	맑음	-2/12℃
흑산도	맑음	9/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10:40 / 23:06	03:26 / 16:02
여수	05:53 / 18:17	11:50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 씨						
최저/최고	4/15	7/16	5/17	8/13	4/10	4/14

전남 교사 10명 중 4명 "管外 출퇴근"

초·중·고 5472명 해당…1시간 이상 '원거리'도 777명

전남지역 교사 10명 중 4명가량이 관외(管外)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 1만642명 중 5472명(37.8%)이 관외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는 5906명 중 2234명(37.8%), 중등교사는 1만136명 중 3238명(31.9%)이 관외 거주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른바 '원거리' 출퇴근 교사도 777명(14.2%)이나 됐다. 전남도내 도로망이 잘 갖춰진 점을 고려하면 1시간 이상 출퇴근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역별로 초등은 광주권 출퇴근이 10.5%로 가장 많았으며 광양권(4.8%), 목포권(3.5%) 순이다. 중등교사도 광주권이 18.6%로 전체 교사 10명 중 2명가량이 광주를 근거지로 했다. 특히 나주지역은 교사 가운데 71%가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시간 이상 원거리 통근 교사는 최대한 근무지 거주를 유도하는 등 복무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거주자 승진시 가산점 부여, 연수여비 차등지급 등 원거리 출퇴근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관외 출퇴근 교사 비율이 35.6%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난 셈이어서 교육당국의 유인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지역 교사들은 매년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외 출퇴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 5등급 분류 구조조정 추진

2015년부터…최상위 제외 4개 등급 정원 감축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시안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 세분화됐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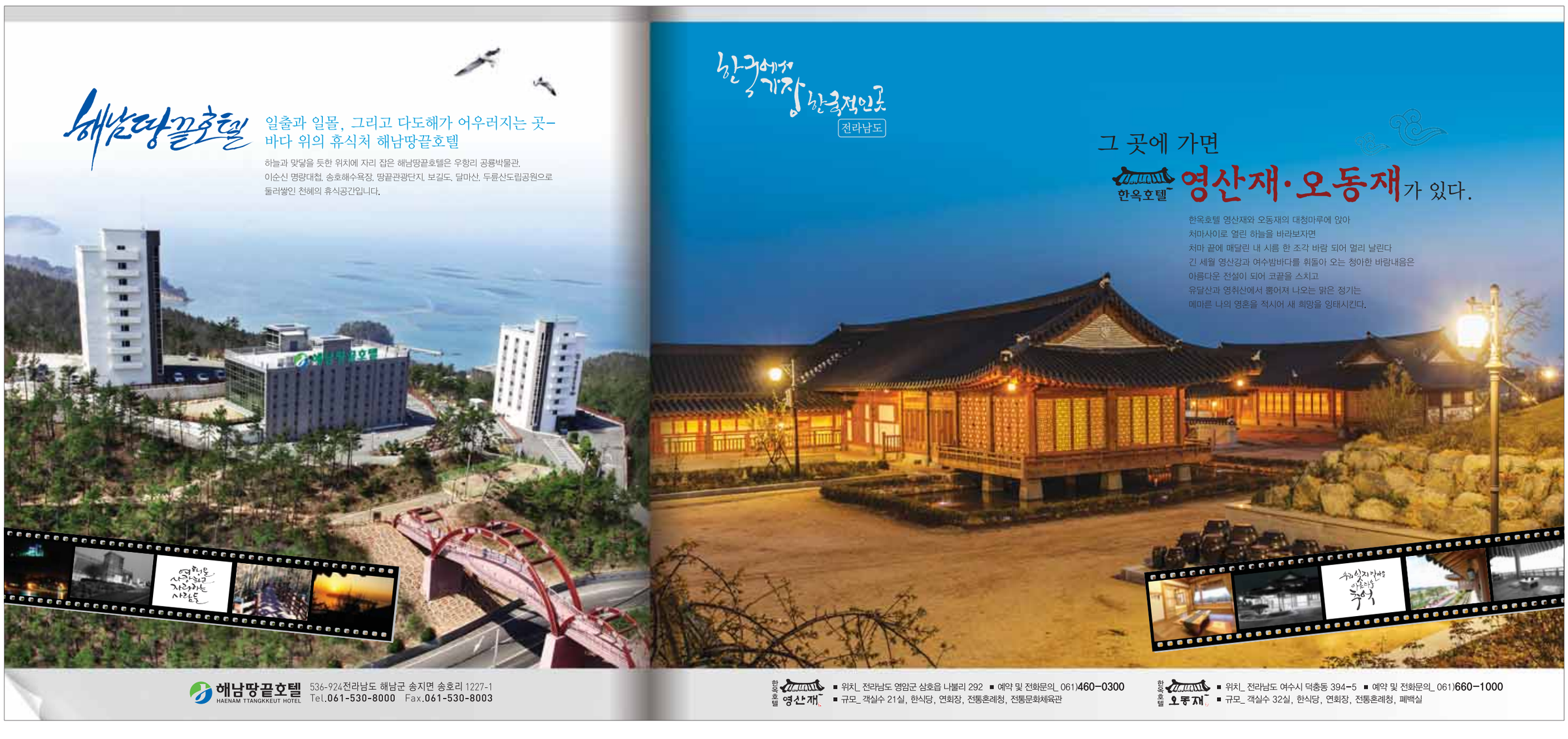
/연합뉴스

겨울철 산불 피해 최소화

신원섭 산림청장 "타 기관과 협업시스템 구축"

산림청이 협업과 융합, 창의를 접목한 '3C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피해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12일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및 유관기관 산림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2013 가을철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갖고 "정부의 3.0 시대에 걸맞은 협업과 융합, 창의 정책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 청장은 이날 산림청의 협업정책으로 "전국 1만4000여명의 산불감시원에게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 GPS를 보급해 산불피해 방지에 신속 대응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정(119)으로 접수되는 산불정보는 유선·팩스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함에 따라 양 기관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협업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청장은 이와함께 "대부분 산림 내 위치해 화재시 전소 등 피해가 막대한 목조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대상물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 기기에 입력한 뒤 실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한 화재에 신속히 대처토록하는 등 다양한 융합 정책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